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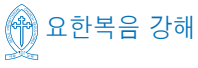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 다섯 번째 기적

(요 6:16-21)

이종윤 원로목사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 떡을 얻어먹은 수많은 군중들은 떡을 먹이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피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자기들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바람이 크게 일고 물결이 높이 솟아오르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내용으로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 배 밑에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니 바다가 잠잠해진 사실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말씀 한 마디로 바다를 평정계 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연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로 오시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찰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행자지하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가는 불쌍한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관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 3. 인도하시는 예수님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6:21)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저편 언덕까지 무사히 데려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광풍이 일어나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험한 데서 구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보내려는 곳으로 또는 그가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십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시 37:5).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고 닫아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 1. 제자들을 관찰하신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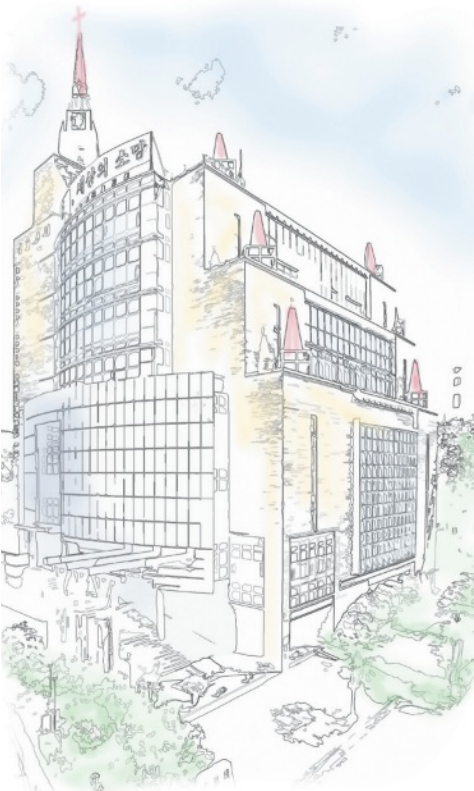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막 6:48)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에게도, 목사에 게도 환란은 옵니다. 요셉과 같은 의인에게도 환란이 오고,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에게도 환란이 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환란의 복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현실에 묶여서 주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시는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가슴을 치며 우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혹은 교회의 문제로 고통 중에 울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러한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궁창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은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함께 계십니다.

### 4. 결론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먼저 믿어야 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영적으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하고, 숨어도 예수님 안에 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십니다. 우리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육신의 위험도 많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풍량이 너무나 많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우리 앞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께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일만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생명도 맡기도 육신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긴 다음에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가 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있으면 결국에 가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철저히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 2021 겨울 성경학교·수련회 온라인으로

청년 1·2부를 시작으로 / 2월 19일(금) 오후 8시

2021 겨울성경학교·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순서를 담당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서	주제	일정 및 시간	방식	지도교역자
영아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딤후 3:16)	2월 27일(토) 오전 11시 - 3월 6일 오후 6시	온라인 미션게시 온라인 미션인증	김은숙 전도사
유아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딤후 3:16)	2월 27일(토) 오전 11시 - 3월 6일 오후 6시	온라인 미션게시 온라인 미션인증	김은숙 전도사
유치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딤후 3:16)	2월 27일(토) 오전 11시 - 3월 6일 오후 6시	온라인 미션게시 온라인 미션인증	김은숙 전도사
유년부	다시 예배합니다. (요 4:24)	2월 20일 (토) 오전 10시-12시	온라인 실시간	박미라 전도사
초등부	다시 예배합니다. (요 4:24)	2월 20일 (토) 오전 10시-12시	온라인 실시간	박미라 전도사
중·고등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고후 5:17)	2월 27일(토) 오후 5시-7시	온라인 실시간	양하림 전도사
청년 1·2부	당신의 말씀대로 (스 10:12)	2월 19일(금) 오후 8시-11시 2월 20일(토) 오전 8시-12시	온라인 실시간	안용곤 전도사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권용평)

## 2021 전반기 장학생 선발

2월 19일(금)까지  
사무국으로 제출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이계홍 장로)는 2021년 전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다.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반, 신학생 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 대상은 대학생·신학생·교역자·직원·선교자 자녀·극빈자·장애인 등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평균 B 이상), 본 교회 등록한지 1년 이상이며, 교회 봉사에 모범적인 자를 선발한다.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http://www.seoulchurc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 제출은 교구 추천서, 교회학교 추천서, 자기소개서 혹은 신앙 간증문,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를 2월 19일(금)까지 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 청년1·2부 겨울 수련회

#### 겨울특집!

#### 청년부 말씀 온 라이브(On Live)



이가진 성도  
(청년1부 부회장)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전 12:1)”

살롱! '겨울특집! 청년부 말씀 온 라이브(On Live)'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 달리 대체 프로그램 '겨울특집! 청년부 말씀 온 라이브(On Live)'로 2월 19일-2월 20일에 진행됩니다. 올해 청년부의 표어는 “당신의 말씀대로”입니다. 작년 한해 코로나19 시국을 겪으며 우리는 모두 교회와 예배,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멀리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서울교회와 청년부가 회복의 길로 들어서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힘써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위기와 고민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더 넓은 사회로 이제 막 나아가는 대학생과 직장인이 많은 청년 1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세상의 관념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세상 속에서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겨울특집! 청년부 말씀 온 라이브(On Live)'에서는 결혼, 음주, 교리 등 평소 얼핏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함께 그 답을 찾고 고민하며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당신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청년1부가 되길 바라며, '겨울특집! 청년부 말씀 온 라이브(On Live)'가 그것의 시작이 되길 소원합니다.

#### 기독 청년들의

#### 정체성을 찾는 시간이 되도록



채승호 성도  
(청년2부 회장)

작년 한 해는 유례없는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교회의 많은 행사, 활동 등이 위축되고 중단된 채 마치 멈춰버린 듯 한 아쉬운 1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히 여겼던 교회 공예배와 한 몸, 한 지체와도 같은 성도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던 듯도 합니다. 저희 청년부는 끊임없이 부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쌓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매일 QT와 기도하기에 힘을 쓰고 있고 올해부터는 겨울수련회도 다시 시작하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록 상황에 맞춰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기에 예전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득찬 수련회는 아니지만 꾸준히 말씀을 듣고 세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독청년들의 고민들을 서로 나뉘보는 시간들을 통해 기독청년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자 합니다.

2월 19일(금)과 20일(토)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 '겨울특집! 청년부 말씀 온 라이브(On Live)' 비록 미약한 시작일진 모르지만 이를 기점으로 다시금 청년부 회복이 탄력을 받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시순절은 부활절 전 46일째인 수요일(올해는 2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날을 가리켜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성회(聖灰) 수요일' 또는 '참회(懺悔)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상징으로 머리에 재를 뿌린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시순절은 회개와 영적 생활의 갱신을 도모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며 금식과 같은 엄격한 경건을 통하여 자신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평소보다 더욱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시순절 기간에는 복음서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순절을 40일이 아니라, 46일동안 지키는 까닭은 이 기간에 있는 여섯 번의 주일은 참회의 날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시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이 기간에는 특별히 결혼식 및 각종 축하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4일(주)입니다.

## 교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 - 온 성도들의 동참과 협력 당부 -



특별위원회 설명중이신  
 임상헌 장로(당회 서기)

“  
 재창립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당회의 보조적인 기구  
 ...  
 성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해당 분야에 관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당회가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교회는 이번 2021년 한 해를 서울교회의 재창립을 준비하는 해로 삼고 6개 소위원회로 이루어진 특별위원회(약칭 재창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주일(2월 7일), 간단한 설명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 나선 임상헌 장로(당회 서기)는 “당회는 2021년 서울교회를 재창립 수준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그 위원으로 장차 서울교회의 중심 역할을 감당할 안수집사 전원과 권사회장을 역임한 권사들을 위촉했으며 시무장로, 은퇴장로 몇 분을 함께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우리교회가 이런 분쟁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사실 많은 성도들이 그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원로목사님께서 지향하는 많은 사역들을 앞만 보며 감당하느라고 많이 지쳐 있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이 완성되고 원로목사님이 은퇴를 하는 시점에 이르자 그 수고에 앞장섰던 많은 성도들도 이제 자신들의 역할도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여 한 분, 두 분 자꾸 뒤로 물러가려 했고 불행하게도 그 빈자리를 서울교회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 채우면서 교회는 예상치 못했던 정체성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때마침 자리가 위태롭다고 느낀 목사가 그 틈을 노려 성도들을 갈라놓게 하여 오랜 시간 아픔과

상처로 깊은 분쟁의 시간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하는 시점에 서게 되었다. 그러므로 재창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서울교회가 다시 한 번 나를 필요로 한다는 소명감으로 서울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교회를 재창립하는 일에만 신안인생의 마지막을 걸고 올 한 해만 더 헌신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재창립위원회의 성격에 관하여 “재창립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당회의 보조적인 기구”임을 강조하면서 “장로교회는 당회가 성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회의 목적과 정체성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 치리하는 대의정치를 하는 정치체제이므로 각 위원들은 자기 개인 의견을 내세우기에 앞서 자기가 담당 분야에 관한 성도들의 의견을 최대한 폭넓게 수렴하여 해당 분야에 관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당회가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 그러면 당회는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새로 모실 담임목사와 함께 잘 준비하여 2022년도를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다. 서울교회는 사실상 담임목사가 결원된 지 5년여가 지나고 있다. 담임목사가 부재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온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 수많은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예배와 구제와 선교 등의 교회의

사역들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었다. 더구나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지난 한 해는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만큼 힘든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창립위원회가 구성되어 새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크나큰 감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위촉된 여러 위원들께서 역할을 잘 해 주시면 서울교회는 2022년에 분명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임상헌 장로는 현재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은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이 언제라도 또 발생할 수 있고, 또 현재 한국의 기독교 교세가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불안한 시대이므로 절제하고 또 절제하여 이 자산 만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도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있는 담임목사 청빙은 정말 시급한 일이긴 하지만 충분한 검증이 없이 아무나 모실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당 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두 가지 어려움을 잘 충족할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서울교회 성도 모두가 긴 시간 동안 분쟁으로 인해 무너진 교회가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염원하는 가운데 때마침 출범한 교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성도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준다. 당회는 이 특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온 성도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부디 위원회의 왕성한 활동과 온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서울교회가 진정한 교회 회복의 길로 뚝뚝뚝 걸어가 2022년은 서울교회 재창립의 원년이 되어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하늘을 오르듯 영적으로 다시 한번 비상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정리 : 허숙 권사(편집부)  
 사진 : 이준태 집사



## 다시 예배합니다!



장윤기 집사  
(유년부 부장)

할렐루야~ 유년부 어린이 그리고 학부모님.  
코로나로 예배와 모든 행사가 온라인으로 바뀐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바뀐 환경 속에서도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성경학교는 아가페타운에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랐고 거기에 맞춰 행사를 준비하였으나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렇게 되지 못하여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2021년도 겨울성경학교는 “다시 예배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교회에서 새롭게 마련한 영상 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년부와 유년부용 성경학교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달해 드리며, 영상에 나와 있는 선생님의 시범에 맞게 주어진 과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동영상은 2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담임 선생님과 밴드를 통해 공유됩니다. 또한 성경학교 과제를 수행할 도구가 각 가정으로 배달될 예정입니다.

해당 시간에 맞게 영상을 보면서 다 함께 성경학교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서울교회 유년부 어린이가 되길 바랍니다.



##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김연전 집사  
(초등부 부장)

다시 예배를 다짐하는 서울교회, 다시금 영과 진리의 예배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인.

다시 예배를 한다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돌아켜 보면 우리의 삶이 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의 예배”와는 상관이 없는, 자기만족의 나만의 예배였었기에,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기에 제정된 올해 총회 및 서울교회의 표어, 성경학교의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용역들의 갑작스런 침입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랑부실을 예배자리로 준비하고, 초등부 교사 경건회 중 많은 교사들이 흐느끼며 슬퍼하였고, 마침기도 후 지도 교역자의 강단있는 질책과 메시지가 전달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절대 어른들의 슬픔을 전달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지금의 환경도, 즐겁게 뛰놀며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로 준비하시고,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도록 합시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한 모임 예배도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습니다. 교사도 학생들도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초등부는 보잘것없고 미흡하고 답답한 마음이지만, 예배하기 원하고 교회를 그리워하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에게 말씀으로 회복되고 성장하며, 천국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를 올해도 마련하려 합니다.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성경학교가 아니라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기에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나가고 무너지는 한국교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입니다. 내가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예배자로 성장시키는 자리로 준비하겠습니다.

장로교 총회가, 서울교회가 외칩니다. “다시 예배합니다!”  
초등부 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2월15일	월	민 5-6		삼상 12-17	
2월16일	화	민 7		삼상 18-23	
2월17일	수	민 8-10		삼상 24-31	
2월18일	목	민 11-13		삼하 1-6	
2월19일	금	민 14-15		삼하 7-13	
2월20일	토	민 16-19		삼하 14-19	
2월21일	주일	민 20-22		삼하 20-24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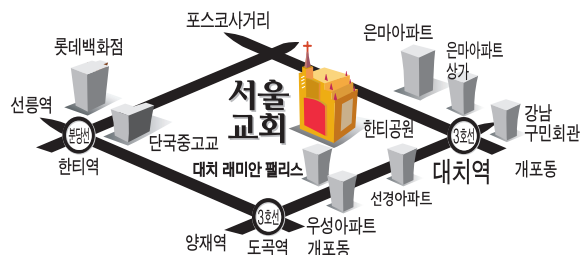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설 명절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가족들 간에 잘 지키게 하고, 조상 숭배의 우를 범하는 일 없게 하고, 전도의 기회를 삼게 하옵소서.
2. 멀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어, 외롭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3. 코로나19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주셔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